

제주 4.3 평화기행에 함께하며

향린교회 박영숙

지난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2박3일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가 제주4.3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로 기획 추진한 <제주4.3평화기행>에 함께하며 많은 것을 되새기고 새롭게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 그 어느 때 제주나들이 보다 특별하고 의미가 컸다.

일정은 제주 4.3역사연구가인 김창후선생의 현장감 넘치는 특강으로 1947년3월1일에서 1954년 9월 21일까지의 7년 7개월간의 4.3사건의 역사속으로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일정은 2000년도에야 비로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제주평화공원에 건립된 4.3평화기념관의 어렵게 수집되고 다듬어진 전시물을 관람하는 일. 공원안에 마련된 1만3천여명의 위패봉안소에서는 6세의 어린이와 80세의 노인, 그리고 한마을이 몰살당한 기록을 한눈에 보면서 지금도 확인 중에 있는 희생자까지 합하면 죽임을 당한 사람은 3만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주4.3사건은 아직 종명되지 못한 역사여서 비명이 정해지지 못해 비문없는 '백비'가 4.3의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개탄하게 한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일에 더하여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생생한 체험은 사건당시 민간 집단학살을 피해 주민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처로 활용했던 천혜의 피신처인 천연동굴들을 직접 답사하는 것이었다. 칠혹같은 어둠속에 절벽 낭떠러지를 내려가야 하는가 하면 앞드려서 기어 들어가야 하는데 바닥과 천정은 날카로운 암벽이어서 작업모를 쓰고 조심해도 무릎의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당시 주민들의 고초를 되새김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이 그 당시 집단살해행위가 벌어졌던 제주도 전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면서 당도한 곳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해군기지화와 공기기지화 계획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평화지킴이들의 시위현장이었다. 제주도민의 평화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기행을 마치면서 회한하며 개탄한 것은 몇백가구가 되었건 한마을이 한날에 제사를 지내야하는 희생자들의 후손들의 피맺힌 아픔을 일찍 헤아리지 못해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해 그 당시의 천인공노할 국가공권력의 만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오늘날에도 같은 만행이 이곳저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상을 두고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지난해부터 제주도민의 아픔을 그들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 '평화주일'을 제정하고 제주 4.3사건을 되새길 뿐 만 아니라 4.19, 5.18항쟁에서 보여준 정신을 기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역사 바로세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기행에서 감동을 받은 것은 이 행사를 주관한 기장의 제주노회 소속 젊은 목사님들이 제주 4.3의 진실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과 헌신의 노력이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기행에서 돌아온 지 한달이 되는 지금까지도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소망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데서이다. 이를 위해 기도한다.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나서야 할